보도자료 Press Release

부산지방기상청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배포일시	2010. 11. 5.(금) 11:00 (총 10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 당 자	과 장 조 진 대 장기예보관 박 인 태
전화번호	051-718-0423		

부·울·경 지난 달(10월) 기상분석 결과

-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 하순 들어 한 차례 기습 한파 -

- 경남서부내륙 첫서리, 첫얼음으로 과수농가 피해 -

◇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10월 25일 이후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기온이 하강하였고
- 10월 중순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 기온

○ 부산 · 울산 · 경남지방의 10월 평균기온은 15.9℃로 평년보다 0.7℃ 높았음. 부산의 10월 평균기온은 18.2℃로 평년보다 0.9℃ 높았음.

□ 강수량

○ 10월 평균 강수량은 54.3㎜로 평년(59.6㎜)과 비슷하였고(평년대비 91.1%),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는 크지 않았음. 강수량은 부산(72.6㎜)이 가장 많았고, 통영(30.2㎜)이 가장 적었음. 강수일수는 6.3일로 평년(5.3일)보다 1일 많았음.

□ 첫서리, 첫얼음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0월 26일~27일 진주와 거창에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되었음.

지역	첫서리			첫얼음		
	관측일	작년대비	평년대비	관측일	작년대비	평년대비
진주	10월 26일	9일 빠름	1일 빠름	10월 27일	7일 빠름	6일 빠름
거창	10월 26일	5일 늦음	12일 늦음	10월 26일	7일 빠름	3일 늦음

□ 향후전망

○ 11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11월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경남서부내륙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12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 산간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부산울산경남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1월 중순	평년(6~11℃)과 비슷하겠음	평년(13~20㎜)보다 적겠음
11월 하순	평년(3~9℃)과 비슷하겠음	평년(12~21㎜)보다 적겠음
12월 상순	평년(2~7℃)과 비슷하겠음	평년(7~11㎜)보다 적겠음

※ 첨부 : 지난 달(10월) 기상분석 결과

[첨부]

지난 달(10월) 기상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지방)

부산지방기상청
2010년 11월 5일 11:00발표

□ 10월의 기온 특징

○ 10월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평균기온은 15.9℃로 평년보다 0.7℃ 높았음.** 평균최고기온과 평균최저기온은 22.1℃와 11.1℃로 평년보다 각각 0.4℃, 1.2℃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18.2**℃로 평년보다 0.9℃ 높았음. 평균최고기온과 평균최저기온은 22.5℃와 15.1℃로 각각 평년보다 0.4℃, 1.4℃ 높았음.

○ 10월 상순 평년보다 1.0℃ 높아

— 평균기온은 18.2℃로 평년보다 1.0℃, 평균최고기온은 24.2℃로 평년보다 0.6℃, 평균최저기온은 13.8℃로 평년보다 1.6℃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0.1℃로 평년보다 0.9℃, 평균최고기온은 24.0℃로 평년보다 0.2℃, 평균최저기온은 17.0℃로 평년보다 1.2℃ 높았음.

○ 10월 중순 평년보다 0.9℃ 높아

— 평균기온은 16.5℃로 평년보다 0.9℃, 평균최고기온은 23.4℃로 평년보다 1.5℃, 평균최저기온은 11.4℃로 평년보다 1.0℃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19.2℃로 평년보다 1.6℃, 평균최고기온은 23.7℃로 평년보다 1.5℃, 평균최저기온은 15.9℃로 평년보다 1.8℃ 높았음.

○ 10월 하순 평년보다 0.1℃ 높아

— 평균기온은 13.2℃로 평년보다 0.1℃, 평균최저기온은 8.4℃로 평년보다 0.9℃ 높았으나, **평균최고기온은 18.9℃로써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평년보다 0.9℃ 낮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15.6℃로 평년보다 0.1℃, 평균최저기온은 12.5℃로 평년보다 0.9℃ 높았으나, **평균최고기온은 20.0℃로써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평년보다 0.5℃ 낮았음.**

표 1. 부산 · 울산 · 경남 10월 기온(℃)

구분	10월 전체			10월 상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부산·경남	15.9	22.1	11.1	18.2	24.2	13.8	16.5	23.4	11.4	13.2	18.9	8.4
(평년)	(15.2)	(21.7)	(9.9)	(17.2)	(23.6)	(12.2)	(15.6)	(21.9)	(10.4)	(13.1)	(19.8)	(7.5)
부산	18.2	22.5	15.1	20.1	24.0	17.0	19.2	23.7	15.9	15.6	20.0	12.5
(평년)	(17.3)	(22.1)	(13.7)	(19.2)	(23.8)	(15.8)	(17.6)	(22.2)	(14.1)	(15.5)	(20.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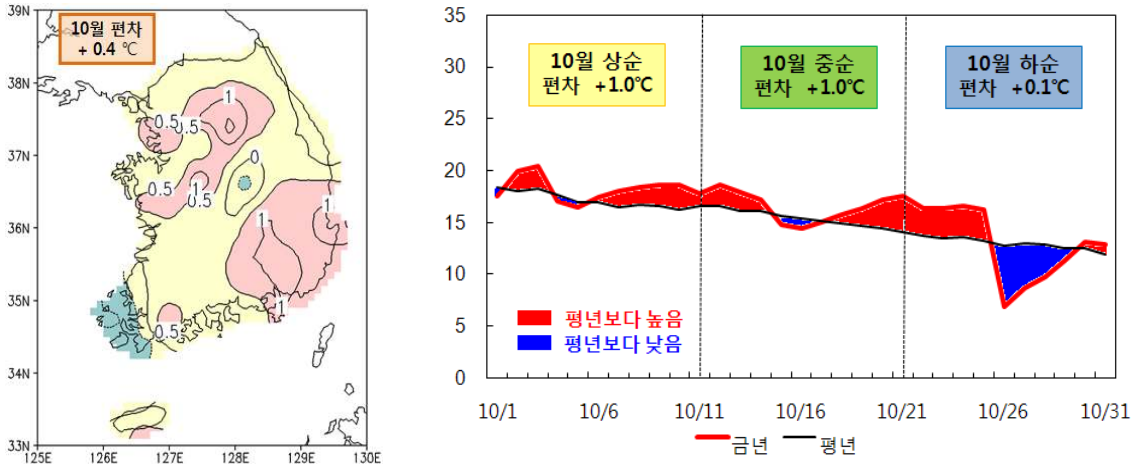


그림 1. 2010년 10월 부산 · 울산 · 경남 평균기온 일변화(℃)

□ 하순 기습 한파의 원인

○ 10월 25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25일과 26일 사이에 평균기온이 16.3℃에서 6.8℃로 9.5℃가 급격히 하강하며 기습 한파가 나타났음(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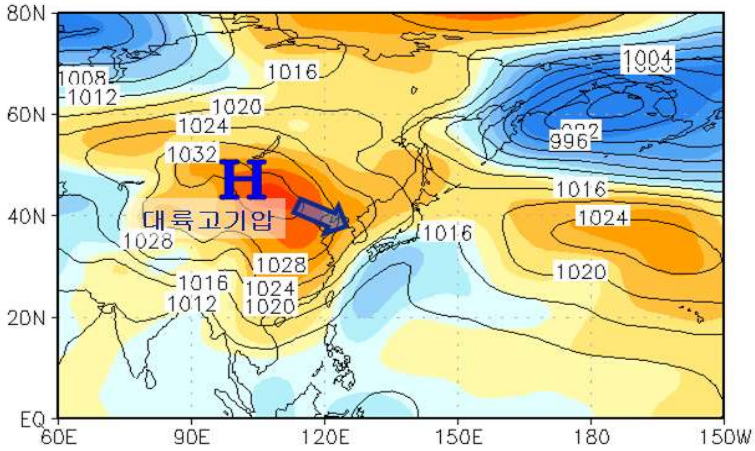


그림 2. (위) 10월 25~31일 기간의 지상기압장(실선) 및 편차장(음영)

□ 10월의 강수량, 강수일수 특징

○ 강수량 평년과 비슷

— 부산·울산·경남지방 10월 평균 강수량은 54.3㎜로 평년(59.6㎜)과 비슷하였고(평년대비 91.1%), 강수일수는 6.3일로 평년(5.3일)보다 1.0일 많았음.

표 2. 2010년 10월 강수량(㎜)

지명	전체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강수량	54.3	38.5	67.5	72.6	30.2	68.3	63.3	55.0	35.8	67.6	58.5	52.8
평년	59.6	60.7	53.0	62.0	55.5	52.7	54.3	49.2	49.4	57.5	79.6	75.3
평년차	-5.3	-22.2	14.5	10.6	-25.3	15.6	9.0	5.8	-13.6	10.1	-21.1	-22.5
대비(%)	91.1	63.4	127.4	117.1	54.4	129.6	116.6	111.8	72.5	117.6	73.5	70.1

—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72.6㎜)으로 평년보다 10.6㎜ 많았고, 가장 적었던 곳은 통영(30.2㎜)이었음.

— 강수는 10월 23~24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왔으나,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였음.

— **10월 상순**에는 2~3일, 8~9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30.1㎜의 비가 내려 평년보다 8.3㎜ 많았음(평년대비 138.1%). **강수일수는 4.3일(평년 1.9일)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음**.

■ 부산은 42.5㎜의 비가 내려 평년보다 20.0㎜ 많았고(평년대비 188.8%), 강수일수는 4일(평년 2일)로 평년보다 2일 많았음.

— **10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음. 강수량은 0.2㎜로 평년(20.9㎜)보다 적었고(평년대비 1.0%), 강수일수는 0.4일로 평년(1.6일)보다 적었음.

■ 부산은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기록하지 않았음.

— **10월 하순**에는 23~24일 기압골 영향을 받았음. 강수량은 24.0㎜로 평년(17.0㎜)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41.2%). 강수일수는 1.6일로 평년과 같았음.

■ 부산 강수량은 30.1㎜로 평년(17.9㎜)보다 많았고(평년대비 168.4%), 강수일수는 2일로 평년(1.7일)과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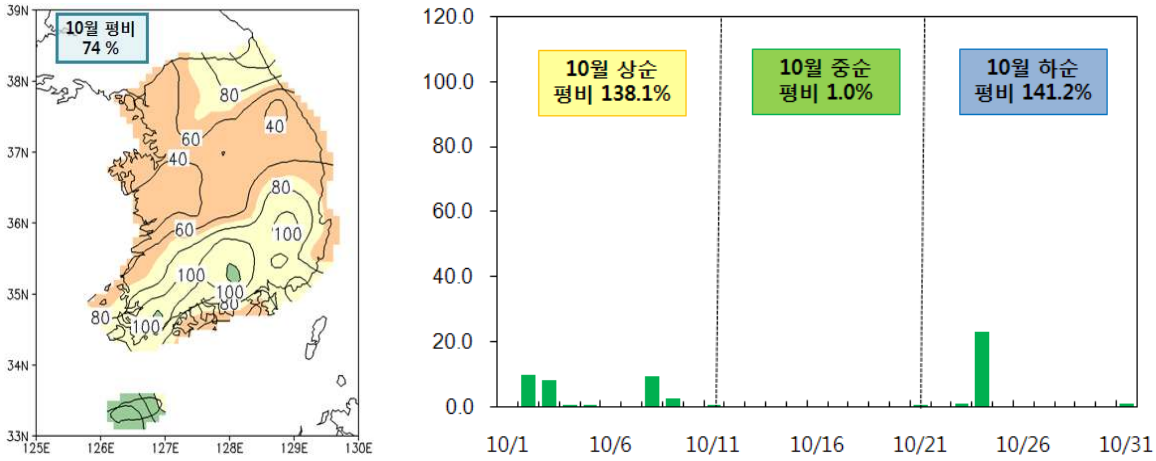


그림 3. 2010년 10월 부산 · 울산 · 경남 강수량 일변화(mm)

□ 중순 강수량이 적었던 원인

○ 중순 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였으며, 후반에는 발해만 북부에 중심을 둔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는 구름 끼는 날이 많았으나 강수량은 매우 적었음(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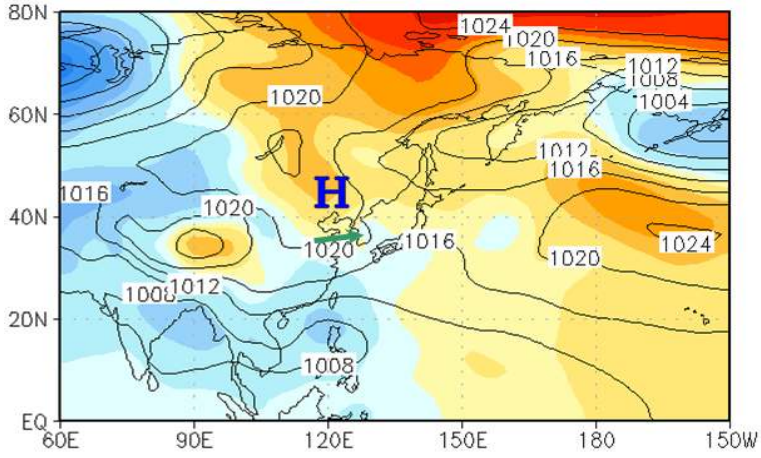


그림 4. 10월 중순의 지상기압장(실선) 및 편차장(음영)

□ 10월의 기상관련 기사

봄·여름 빨리 오고 가을·겨울은 늦어

부산기상청 1900년대초와 비교
우수·경칩 17일 앞당겨지고
입동 7일, 소설 10일 늦어져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부산지역의 봄·여름 절기는 과거보다 빨라지고, 가을·겨울 절기는 늦게 찾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기상청은 1909~1938년(이후 과거)과 2000~2009년(이후 최근)의 부산지역 각 절기에 관측된 기온을 비교한 결과 우수와 경칩은 17일 빨라졌고 입동은 7일, 소설은 10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시기인 우수(양력 2월 19일께)는 과거 평균기온이 3.5도였지만 최근에는 6.1도로 높아졌다. 최근 우수의 평균 기온이 과거에는 2월 2일께 나타나 17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4월 5일께인 청명의 경우 과거 평균기온이 10.1도, 최근 평균기온은 12.4도로 19일 앞당겨졌다.

반면 가을·겨울 절기는 늦어졌다. 더위가 누그러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인 처서(8월 23일께)의 과거 평균기온은 24.9도였지만 최근에는 25.3도를 기록했다. 최근 처서의 평균기온을 과거에 대입하면 8월 18일에 해당돼 6일가량 늦어진 것이다. 겨울에 접어든다는 절기인 입동의 경우에도 7일가량 늦어졌다.

이 밖에도 봄·여름 절기인 곡우, 입하, 소만, 망종 등은 각각 13일, 8일, 7일, 5일 앞당겨졌으며 가을·겨울 절기인 입추, 백로, 한로, 상강 등은 각각 10일, 6일, 12일, 9일 늦어졌다.

절기의 이동과 함께 가장 더웠던 날도 변하고 있다. 부산은 과거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이 8월 13일(최고기온 평균 30.3도)이었지만 최근에는 8월 4일(최고기온 평균 30.4도)로 9일 앞당겨졌다. 하지만 가장 추운 날은 과거(1월 23일·최저기온 평균 영하 2.8도)나 최근(1월 24일·최저기온 평균 영하 1.1도)이 별 차이가 없었다. 조진대 부산기상청 기후과장은 "절기의 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24절기의 전통적인 개념이 최근에 와서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0. 10. 20. 국제신문

기습 추위로 때이른 월동준비

이병욱 유정환 기자 junny97@kookje.co.kr

26일 전국에 기습 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때 이른 월동 준비에 나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전날에 비해 11.6도나 떨어졌다. 경남 합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두꺼운 외투 등 한겨울 옷차림을 했고, 대형 마트 등에는 온열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온천천 등 부산지역 주요 산책로에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으며,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는 보관 중이던 온열기를 꺼내 가동하는 모습이었다.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미순(여·53) 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이 덥다고 해서 낮에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오늘 전기 난로를 꺼냈다"며 "가을에 이런 추위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26일 롯데마트 동래점을 찾은 시민들이 난방용품을 고르고 있다. 김성효 기자

어제 부산 아침 최저기온 5.5도
두꺼운 외투 등 한겨울 옷차림
오리털 점퍼·온열기 판매 불티
유통가 겨울용품 2주 빨리 내놔

때 이른 추위로 오리털 점퍼와 전기요 같은 난방용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일부 유통가에서는 서둘러 특가전을 펼치는가 하면 예년보다 2주 빨리 겨울용품을 내놓는 곳도 늘고 있다.

이날 하루 신세계 센텀시티 4층 베네통 매장은 하루 새 고객이 2~3배가량 늘었다. 주로 카디건 베스트 등 니트류를 구입하기 위해 찾은 고객들이었다. 신세계 센텀시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머플러와 장갑, 스타킹과 레깅스 등 겨울철 대표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린나이에는 온풍기를 찾는 문의가 쏟아지면서 매년 11월 중순에나 매장에 진열하던 것을 2주 앞당겨 27일께 4종류의 온풍기를 입고할 예정이다.

메가마트에는 이날 국수 라면 우동 등 면류를 찾는 고객이 늘어 전날에 비해 매출이 80%가량 뛰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몸을 데울 수 있는 뜨거운 국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운탕과 해물탕 등 탕류 40%, 전통차도 60%가량 매출이 올랐다. 한편 이 같은 추위는 28일까지 계속되다 29일 오후 늦게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10. 10. 27. 국제신문

기습 한파에 단감농가 '얼어버린 농심'

창원·김해·창녕·진주·함양 등 도내 100ha 규모

감잎 마르거나 과실 얼어 정부 관심·대책 필요

28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중방마을의 단감 과수원에서 농민이 얼어버린 단감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조고운기자/

지난 25~27일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확기를 맞은 단감이 냉해를 입어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다.

28일 경남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와 서부경남지역 자치단체와 농가, 농협 등에 따르면 평년보다 3~4주 이른 기습 한파로 창원, 김해, 창녕, 진주, 함양, 산청, 합천 등 도내의 100ha 규모의 단감 농경지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감 농가들은 올 들어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수확량이 지난해 비해 30~4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확기에 앞서 냉해로 단감까지 얼어버리자 수익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창원 북면농협은 지역 전체 단감 농가의 30%가량이 냉해로 감이 얼거나 감잎이 마르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경남단감농협 역시 김해 진영읍 저지대의 단감 농가들이 적지 않은 냉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북면에서 6만6115㎡ 규모의 단감 농사를 짓는 윤현조(62)씨는 "지난 26일 새벽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농가의 단감 절반이 얼고 잎이 망가져서 7000~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언 것은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데, 날씨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집중적인 한파 피해를 입은 함양읍 웅곡 일대에서는 단감과 잎이 얼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과수원 바닥에는 못쓰게 된 단감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다른 과수원에선 대봉감이 익기도 전에 잎부터 말라버리고 있어 상품성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함양군 수동면에서 1만㎡의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정모(56)씨는 "단감이 기습한파로 얼어 감식초로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호소했다.

산청군 신안면 중촌 일대의 출하를 앞둔 단감도 마찬가지로, 얼어버린 단감은 껍질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 거뭇거뭇해지고 속은 멍이 든 것처럼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마을 이장 이병훈(55)씨는 "신안면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단감들이 동해로 큰 손해를 입어 산청군에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단감 주산지인 진주시 문산읍 미천면 일대 저지대에서도 단감 재배 농가 대부분이 냉해를 입었다.

진주시 관내에서는 1500ha에 단감이 재배돼 1만9500여t이 생산될 계획이지만 이번 한파로 20~3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단감연구소 관계자는 "보통 11월 중순께 한파가 오는데 올해처럼 수확 시작기인 10월 말께 한파가 닥친 것은 최근 3~4년간 없던 일"이라며 "익지 않은 감의 잎이 마르거나 얼어버린 경우가 많아 피해 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 북면농협 서정효 조합장은 "단감들이 한창 커서 상품가치가 높아져야 할 때 갑자기 냉해를 입어 지역 단감 농가들이 울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진태·서희원·조고운기자 lucky@knnews.co.kr

2010. 10. 29. 경남신문

강추위에 유통가-농가 희비 엇갈려

백화점·대형마트 등 의류·난방용품 매출 기대
농촌지역은 기습 한파에 배추 등 생육부진 우려

2010년 10월 26일 (화) 22:00:37 서대현 기자 sdh@ksilbo.co.kr

올 가을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울산지역 유통업계는 겨울의류와 난방용품 매출 상승을 기대하면서 반색했다.

그러나 강추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출하를 앞둔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의 생육부진과 동해가 예상되고 있어 채소값 폭등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는 26일 강추위가 밀어닥치자 그동안 판매가 부진했던 겨울상품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직 겨울상품에 대한 수요는 미미하지만 추위가 계속되면 이번 주말부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을인 데도 날씨가 무더워 히터와 겨울의류 등의 판매가 예년보다 못했다"며 "날씨 추이를 지켜보면서 입고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 백화점 모피 매장도 추운 날씨가 반가운 기색이다.

롯데백화점 울산점 한 모피매장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 판매가 부진해 걱정이 많았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입고 물량도 늘리고, 11월에는 특가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가와 소비자들은 느닷없이 불어닥친 추위가 달갑지 않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생육 재생기를 맞아 새싹이 올라오던 보리, 마늘, 양파 등 겨울작목과 김장용 배추와 무 등 생육부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추위가 이어지면 동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김장철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로 채솟값 급등을 우려하는 등 갑작스런 추위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2010. 10. 26. 경상일보

때 아닌 한파에 과수농 가슴도 '꽁꽁'

단감·사과 얼어 상품성 상실
잎 마른 건 보험 혜택도 못받아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갑작스러운 한파로 서부경남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단감 대봉감 등 과수들이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8일 함양군·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서부경남 지역에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치면서 수확기 단감 사과 등이 동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아직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함양에서는 전체 85ha에 재배되고 있는 단감 대부분이 기습한파로 얼어 못 쓰게 됐다. 함양읍 웅곡 일대에서는 단감과 잎이 얼어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다. 대봉감도 익기도 전에 잎부터 말라버리고 있다.

28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의 한 농가의 단감나무 잎이 최근 닥친 기습한파로 말라비틀어져 있다. 김인수 기자

함양군 지곡면 일대 사과 재배 농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함양군 수동면에서 1만㎡의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정모(56) 씨는 "단감이 얼어 감식초로도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단감 90%, 사과 30%가량이 한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청군 신안면 중촌 일대에서도 출하를 앞둔 단감이 큰 피해를 입었다. 얼어버린 단감은 껍질이 거뭇거뭇해지고 속은 멍이 든 것처럼 거무스름하게 변하면서 상품성을 잃고 있다.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마을 이장 이병훈(55) 씨는 "신안면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들이 한파 피해를 입어 산청군에 대책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단감 주산지인 진주시 문산읍 미천면 일대 저지대에서도 대부분의 단감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고 있다. 진주시 관내에는 1500ha에 단감이 재배돼 1만9500여 t이 생산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한파로 20~30% 가량은 상품성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오겠지만 잎이 마른 부분은 동상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0. 10. 29. 국제신문

□ 향후 전망

○ **11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1월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경남서부내륙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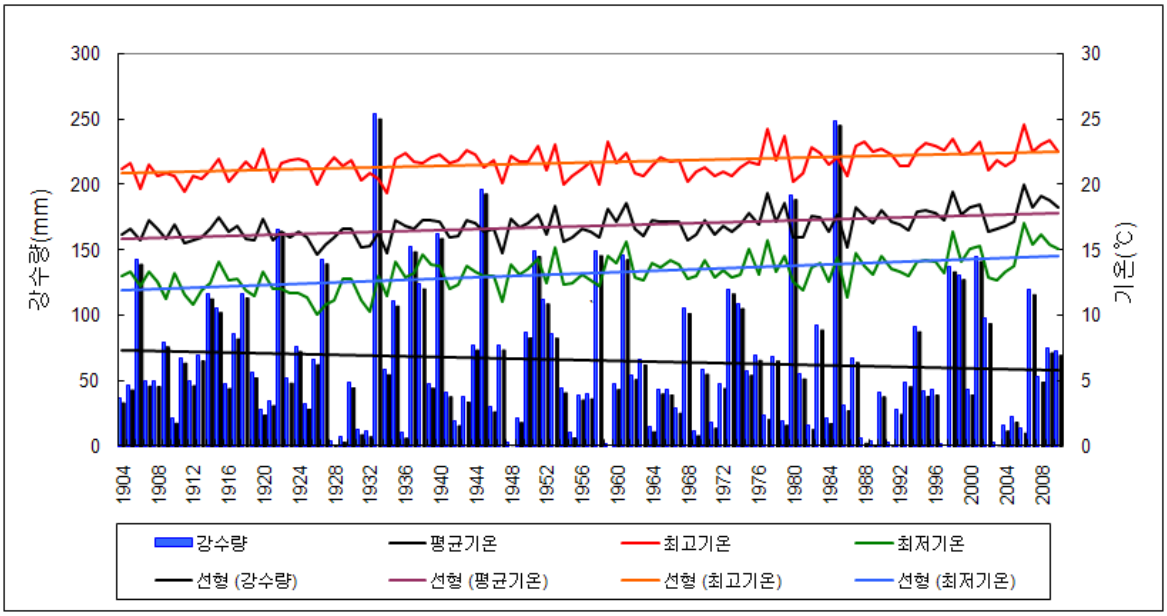
○ **12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대체로 건조한 경향을 보이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 산간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부산·울산·경남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1월 중순	평년(6~11℃)과 비슷하겠음	평년(13~20㎜)보다 적겠음
11월 하순	평년(3~9℃)과 비슷하겠음	평년(12~21㎜)보다 적겠음
12월 상순	평년(2~7℃)과 비슷하겠음	평년(7~11㎜)보다 적겠음

※ [붙임1] 부산 · 울산 · 경남지방의 10월 기상분석자료
[붙임2] 부산의 10월 기상분석자료

[붙임 1]	부산·울산·경남지방의 10월 기상분석자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73-2010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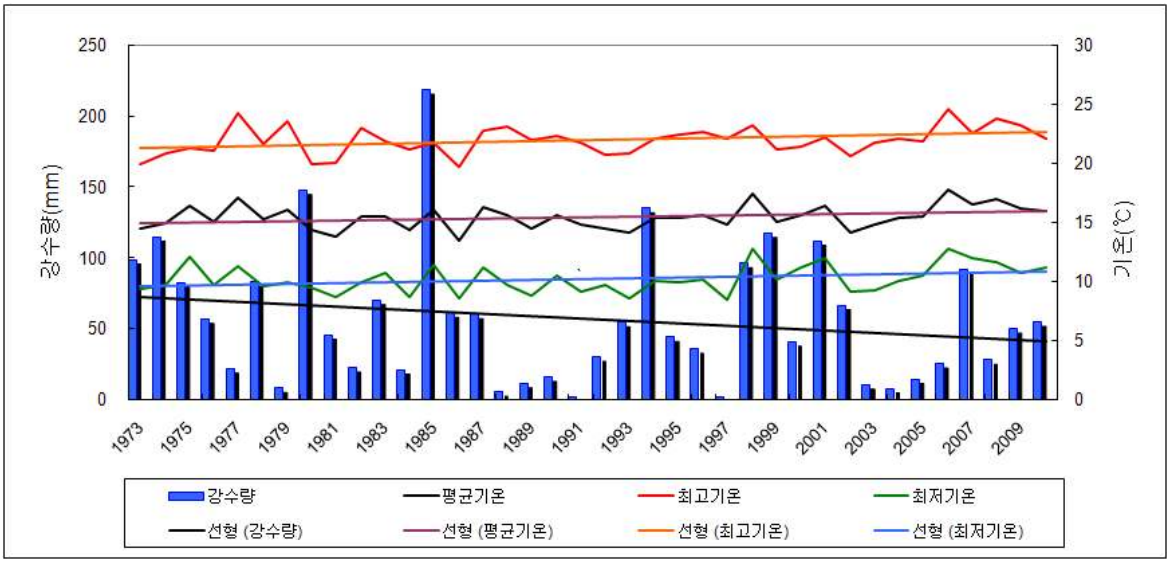
요소(부산 · 울산 · 경남)	2010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5위까지만)
평균기온(℃)	15.9	15.2	0.7	-
평균 최고기온(℃)	22.1	21.7	0.4	-
평균 최저기온(℃)	11.1	9.9	1.2	-
강수량(mm)	54.3	59.6	-5.3(91.1%)	-
강수일수(일)	6.3	5.3	1.0	-
일조시간(hr)	183.2	209.1	-25.9(87.6%)	-
상대습도(%)	70.3	70.2	0.1	-
일교차 10℃ 이상 일수	19.2	20.1	-0.9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	평균 최고기온 (℃)	평균 최저기온 (℃)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상대습도 (%)	일교차 10℃이상 일수(일)
1973-1980년(a)	15.4	21.6	10.1	76.3	6.4	209.9	72.0	19.1
1981-1990년(b)	15.1	21.8	9.8	52.7	5.3	210.5	71.6	20.7
1991-2000년(c)	15.3	21.8	10.0	55.2	4.6	195.9	67.8	20.2
2001-2010년(d)	16.0	22.5	10.9	45.6	4.8	201.3	67.5	19.4
d-a	0.6	0.9	0.8	-30.7	-1.6	-8.6	-4.5	0.3
d-b	0.9	0.7	1.1	-7.1	-0.5	-9.2	-4.1	-1.3
d-c	0.7	0.7	0.9	-9.6	0.2	5.4	-0.3	-0.8

[붙임 2]	부산의 10월 기상분석자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04-2010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	2010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04년 이후 순위(5위까지만)
평균기온(℃)	18.2	17.3	0.9	-
평균 최고기온(℃)	22.5	22.1	0.4	-
평균 최저기온(℃)	15.1	13.7	1.4	-
강수량(mm)	72.6	62.0	10.6(117.1%)	-
강수일수(일)	6.0	5.4	0.6	-
일조시간(hr)	193.4	203.2	-9.8(95.2%)	-
상대습도(%)	62.9	65.2	-2.3	-
일교차 10℃ 이상 일수	4.0	7.7	-3.7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평균 최고기온 (℃)	평균 최저기온 (℃)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상대습도 (%)	일교차 10℃이상 일수
1904-1910	16.4	20.9	12.7	60.3	7.6	210.4	64.1	7.6
1911-1920년	16.3	21.0	12.3	73.7	7.5	208.7	64.8	10.8
1921-1930년	16.0	21.4	11.6	62.3	6.1	239.1	66.0	14.6
1931-1940년(a)	16.4	21.3	12.8	93.7	6.4	224.4	65.0	8.4
1941-1950년	16.5	21.7	12.9	58.5	5.4	227.7	62.3	9.3
1954-1960년	16.8	21.6	13.3	67.3	5.6	203.7	63.4	6.3
1961-1970년	16.9	21.3	13.7	56.7	5.3	206.8	64.4	3.6
1971-1980년(b)	17.2	21.7	13.7	72.0	5.6	185.0	65.2	5.9
1981-1990년	17.1	22.2	13.4	57.8	5.4	213.0	66.6	10.3
1991-2000년	17.7	22.5	14.1	56.3	5.3	211.6	64.0	6.8
2001-2010년(c)	18.0	22.6	14.7	61.1	5.0	202.0	61.6	4.9
c-a	1.6	1.3	1.9	-32.6	-1.4	-22.4	-3.4	-3.5
c-b	0.8	0.9	1.0	-10.9	-0.6	17.0	-3.6	-1.0

<용어해설>

○ **'부산 · 울산 · 경남'**의 의미는 10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평균한 것임. 예를 들어 금년 10월의 강수량 54.3mm의 의미는 10개 지점의 10월 강수량을 모두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임.

○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평균값임.

○ **부산 · 울산 · 경남 평균**은 관측지점 수가 급증하여 안정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10개 지점**을 평균한 것임.

— 1973년 이후를 비교한 이유는 현재 **'부산 · 울산 · 경남'** 평균하는 10개 지점의 관측시작 시기가 1973년 이후가 대다수이므로 1973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부산**의 경우 1904년**부터 분석 자료임.

<연대 예시>

○ 1970년대: 1971년부터 1980년까지를 의미

○ 2000년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의미